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미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0.11. 현재 122개 업체) 및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은 우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고, 다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지원²⁾할 수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목 차 >

□ 중국, Waigaoqiao항 6단계 터미널 완공 예정 -----	2
□ 독일 교통부, 중국철도부와 철도인프라개발 사업 MOU 체결-----	3
□ 두바이, 인도 구자라트주에 신규 컨테이너 항만 개발 제안-----	4
□ 엘살바도르, La Union항 1단계 운영사 모집 예정 -----	5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이진주 연구원(02-2105-2982, jinjoo@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중국, Waigaoqiao항 6단계 터미널 완공 예정

- 중국 상하이 Waigaoqiao항 6단계 터미널이 이달 말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
- 터미널 길이는 1,538m이며, 컨테이너 3선석과 Ro-Ro 2선석으로 투자금액은 약 726백만달러임
 - 연간 2.1백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으며, 730천개의 Ro-Ro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임
- 올해 10월까지 상하이항 「컨」물동량은 지난 해에 비해 8.1% 증가한 23.5백만TEU로 싱가포르항(23.1백만TEU)보다 많은 물동량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됨
 - 올해(2010년) 「컨」물동량은 상하이항이 싱가포르항을 앞서 세계 1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이 될 것으로 전망됨

<Waigaoqiao항 현황>

구분	시설현황	설립회사
Waigaoqiao 1단계	안벽길이 : 900m 선석 : 컨테이너 3선석 장비 : 크레인 6대 야드면적 : 500천㎡	· Shanghai Waigaoqiao Free Trade Zone Stevedoring Co. · Hutchison Ports Pudong Limited · COSCO Pacific (China) Investments Limited · COSCO Ports (Pudong) Limite
Waigaoqiao 2-3단계	안벽길이 : 1,566m 선석 : 컨테이너 5선석 장비 : 크레인 13대 야드면적 : 1,659천㎡	· SIPG Zhendong Container Terminal Branch Ltd
Waigaoqiao 4단계	안벽길이 : 1,250m 선석 : 컨테이너 4선석 장비 : 크레인 13대 야드면적 : 1,550천㎡	· 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 Co. Ltd · APMT Terminals
Waigaoqiao 5단계	안벽길이 : 1,100m 선석 : 컨테이너 4선석 장비 : 크레인 12대 야드면적 : 1,630천㎡	· SIPG and Hutchison

자료 : Cargonews Asia 2010. 11. 2, 상하이항 홈페이지 (www.portshanghai.com.cn)

이진주 연구원(☎ 02-2105-2982, jinjoo@kmi.re.kr)

□ 독일 교통부, 중국철도부와 철도인프라개발 사업 MOU 체결

- 지난 12월 7일, 독일 교통부는 중국철도부와 중국의 철도 인프라개발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MOU를 체결하였음
 - 이번 MOU를 통해 독일의 Deutsche Bahn사는 아시아와 유럽간의 철도 인프라 개발은 물론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중국 철도부와 협력할 예정임
 - 특히 신규 서비스는 독일-러시아-중국을 잇는 서비스로 Deutsche Bahn사의 유럽노선과 Russian Railways사의 TSR(Trans-Siberian Rail)노선 그리고 중국의 TCR(Trans China Railways)노선이 연계되는 서비스로 개발될 예정임
- 2010년 한 해 동안 Deutsche Bahn사는 5개에 달하는 중국 고속철도 개발사업 입찰에서 사업권을 획득한바 있는데, 계약금액은 4,000만 달러에 이름
- ※ 중국정부는 '11·5'계획을 통해 지난 2008년 향후 2020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철도망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에는 철도 컨테이너운송 활성화를 위한 '전국 18대 철도물류허브 구축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2010년 7월까지 상하이, 쿤밍, 충칭, 청두, 쑹저우, 시안 등을 포함하는 6개 허브가 운영중에 있으며, 2010년 중에는 다렌, 칭다오, 우한 등에 철도물류허브가 구축될 예정임
 - 아울러 2012년까지는 광저우, 선전, 닝보, 우루무치, 란저우, 톈진, 베이징, 선양, 하얼빈 등 9개 지역에 철도물류허브를 건설할 예정임
- ※ 철도물류허브 구축사업은 중국 C R Intermodal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C R Intermodal사는 최대주주인 중국철도부 직속 CRCT(China Railway Container Transport)사를 비롯하여 Deutsche Bahn, CMA-CGM, ZIM 등이 포함된 7개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7년 설립됨

자료 : Ci-Online, 2010. 12. 09. 및 KMI 중국물류리포트, 2010. 7. 14. 참조

김찬호 책임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

□ 두바이, 인도 구자라트주에 신규 컨테이너 항만 개발 제안

- 두바이가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 주에 신규 컨테이너 항만 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두바이에서 인도 구자라트 지역의 산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고자 신규 컨테이너 항만을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제안된 개발규모는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타당성 조사에서 고속도로, 철도 터미널 및 공항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대상지역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현재의 계획 일정은 2011년 중순까지 해역조사를 완료하고, 2012년 중순까지 각종 인허가 및 항만 설계를 완성하여, 2015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구자라트 지역은 인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곳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급 불균형이 약 4천만 톤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위의 신규 컨테이너 항만의 타당성 조사 관계자는 '구자라트 지역의 컨테이너 수요는 621만 TEU에 달하나 공급은 565만 TEU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음
 - 또한 그는 '노동, 전력, 도로 및 철도를 통한 내륙 운송 용이성, 물동량 증가 및 우호적인 지방정부 등의 장점에 힘입어 컨테이너항만이 개발될 경우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두바이 및 인도 구자라트주 위치>



자료 : gulfnews.com/, 2010.12.13. / www.dredgingtoday.com, 2010.12.13.

송주미 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 엘살바도르, La Union항 1단계 운영사 모집 예정

- 엘살바도르 La Union Port 컨테이너 터미널 1단계 운영사 모집을 위한 입찰을 내년(2011) 중 실시 예정
 - 운영사 투자금액 : US\$70백만불
 - 입찰방식 : Public, International
 - 역할 :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 임대기간 : 미정
- ※ "landlord" 모델(정부가 항만 인프라 및 토지 소유권을 가지나, 공공시설을 임대하여 민간이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로 운영될 예정이며, 2년전 같은 모델이 제안되었으나 정치권의 합의 부재로 무산된 바 있음

<항만 개요 및 프로젝트 소개>

- 위치 : 수도(산살바도르)에서 동쪽으로 185km 떨어진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와의 국경지역 폰 세카만(Gulf of Fonseca)에 위치
- ※ 태평양 연안의 La Union항 및 대서양 연안의 Cortez, Tomas de Castilla, Barrios항을 연결하는 육상 운하건설이 가능하며 개발 완료시 중미의 허브 항구가 될 전망

○ 항만개발 계획

[1단계 사업 개요]

- Phase I 건설기간 : 2005~2009.1월 (2010.6.21 준공)
- 총투자액 : US\$180백만불
- 투자사 : Japanese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및 CEPA (엘살바도르 항만위원회, Comision Ejecutiva Portuaria Autonoma) 공동 투자
- 하역장비 : CEPA에서 US\$5백만불 상당 중고 G/C 설치 완료 및 향후 추가로 US\$24백만불 추가 투자 예정
- 2010년도 처리예상 물동량 : 5만TEU (2011년 이후 30만TEU)

<항만개발 계획>

단계	면적(m²)	수심(m)	안벽(m)	처리능력(TEU)	비고
I	360,000	14	580	750,000	6500teu급 풀컨테이너선 기항 가능
II	320,000		603	1,750,000	여객 및 Ro-Ro
III	270,000		611		
Total			1,794	2,500,000	

<La Union 항만개발 위치 및 개발 터미널 모습>



자료 : Proesa 자료 및 기타 현지 언론보도 자료, 부산항만공사(BPA)

이진주 연구원(☎ 02-2105-2982, jinjoo@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비용 지불),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